

## 히틀러의 1940년 12월 10일 연설문 분석

김종영(목포대)

### 1. 들어가는 말

1940년 12월 10일 히틀러는 베를린 군수공장에서 노동자들을 앞에 두고 연설을 하였다. 연설의 중심부에는 국가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체제의 두 세계가 대립되고, 이 두 세계 가운데 하나는 멸망해야 한다는 논지가 전개된다. 이 시기에 전개된 선전은 영국을 주 적이나 전쟁의 원흉으로 설정한다.<sup>1)</sup> 히틀러는 민족의 생존을 위해 민족공동체를 확립하고, 나아가서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구속에서 벗어나자고 독일국민에게 호소한다.<sup>2)</sup> 그는 자신의 정치적 약속과 목표를 정당화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비장한 각오를 선포한다.

이 전투에서 진다면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벌이는 사회적 재건사업의 끝이 아니라, 독일민족의 종말을 의미합니다.<sup>3)</sup>

당 기관지 『뵐키셔베오박터(Völkischer Beobachter)』를 보면 연설장소의 모습과 그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히틀러는 선반, 드릴, 크레인, 반제품의 대포 등이 널려져 있는 커다란 공장 안에 높게 세워진 연단 위에서 연설한다.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중은 받침대 위에 앉아 있고 미끄러운 포신 위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서 있거나, 연단아래 공장 바닥 위에 서 있다. 연단은 몇 개의 나치스 갈고리 십자가로 단조롭게 치장되어 있으며, 홀 주위에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비품들이 무미건조함을 발산한다.<sup>4)</sup> 신문을 보면 남녀 근로자들

1) Vgl. Sluzalek(1987: 62). 나치는 전쟁에 대한 국민적 결의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퍼레이드, 기념배지, 완장, 제복, 라디오, 익살스러운 공연 등이 대국민 결속장치로 이용되었고, 이는 자연스레 영국에 대한 증오를 겨냥한다.

2) 히틀러는 베르사유조약의 부당함과 세계 영토의 불공정한 분할에 항변하며 독일민족의 생존권확보를 주장하고 나선다. 아울러 그는 몇몇 거대 자본가에 의해 조종되는 민주주의 국가형태는 붕괴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3) Bouhler(1942: 167).

4) 이 무미건조함은 청중으로 하여금 그들이 생활하는 주변을 새롭게 체험하게 한다.

의 얼굴 속에서 그들이 총통과의 만남을 기쁘게 기다린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주님의 복음을 들으러 교회에 운집한 신자들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sup>5)</sup> 청중이 특별히 선택된 것인지에 대한 암시는 없다. 신문에는 엄청난 박수와 성대하고 열렬한 환영으로 상승 고조되어 있는 청중의 반응이 묘사되어 있고, 연설에 관한 외국언론의 반응도 선별적으로 게재되었다.<sup>6)</sup>

히틀러의 이 연설은 정치연설에 속한다. 정치연설문은 여러 차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연설이 전개되는 상황을 분석하고, 연설에 앞선 여러 기획이나 연출적 차원을 살펴볼 수 있으며, 연설에 들어있는 각종 전략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여기에서는 연설내용을 고전수사학의 원칙<sup>8)</sup>에 입각하여 착상(inventio)에서 발견된 생각이 배열(dispositio)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각 부분에서 연사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또 어떠한 표현을 이용하여 청중의 마음을 얻어가고 있는 가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기로 한다.

## 2. 수사학적 분석

히틀러는 이 연설을 통하여 베르사유 조약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불공정한 세계분할로 인하여 속박 받는 독일민족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전쟁을 정당화시킨다. 이를 위해 공간 없는 독일민족의 개념을 부각시키고, 계층간의 이해관계를 부정하며 민족공동체 구현의 필연성을 강조해나간다. 이와 더불어 전쟁으

---

단순화시켜 나타나는 홀 안의 색상은 청 회색으로 음침한 효과를 내고 있고, 이는 청중으로 하여금 강화된 근로부담으로 요구되는 희생을 감수하도록 선동해내는데 적격이다.

- 5) 신문 1면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중양통로에 사람들의 머리가 쇄도하고 총통을 기다리는 남자와 여자들이 몰려든다. (...) 총통이 등장 (...) 그의 시선은 홀 전체의 사람들 위를 스쳐 지나간다”(Völkischer Beobachter vom 12.12.1940, S.1).
- 6) 외국언론의 근본취지는 두려워하는 것부터 경탄해마지 않는 것까지 매우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7) 여러 준거에 입각한 히틀러 연설문 분석에 대해서는 Winckler(1983), 김종영(2003) 참조.
- 8) 연설이 구체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데에는 다섯 가지 가공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착상(inventio), 배열(dispositio), 표현(elocutio), 기억(memoria), 발표/연기(pronuntiatio/actio)의 순서로 진행된다.

로 인해 야기되는 국민적 부담의 정당성과 나치 지도자원리의 정당성이 논의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희생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반자본주의가 공식적으로 표명된다.

이러한 연설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히틀러는 자신의 착상을 논리 정연하게 배열시켜나간다. 이제 그의 논지전개과정을 앞서 언급한 고전 수사학의 논거배열(dispositio)에 입각하여 각 부분을 도입부(exordium), 진술부(narratio), 논증부(argumentatio), 종결부(peroratio)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sup>9)</sup> 담론이 시작되는 도입부에서는 청중의 관심과 호감을 살 수 있어야 하고, 사태의 대강이 진술되는 진술부에서는 간결하고 명확하며 신빙성 있게 표현되어야 한다. 논증부에서는 연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주는 논거가 제시되고, 상대의 논거를 반박하여 청중에게 논지의 정당함을 분명하게 알린다. 담론이 종결되는 종결부에서 연사는 주로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이는 일에 주력하게 된다.<sup>10)</sup>

분석에 사용한 Bouhler(1942)의 히틀러 연설 모음집에는 이 연설이 총 86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단락 1에서 단락 8까지가 연설문의 도입부에 해당된다. 진술부는 단락 9에서 16까지가 해당되고, 단락 17에서 81까지는 논증부이다. 끝으로 종결부는 단락 82에서 86까지가 해당된다. 논증부를 다시 다섯 개의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단락 17에서 26까지가 그 첫 번째 부분이고, 단락 27에서 47까지가 두 번째 부분을 이룬다. 단락 48에서 54까지가 그 세 번째 부분이고, 단락 55에서 57은 네 번째 부분에 해당된다. 끝으로 단락 58에서 81까지는 이 연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논증부의 결론에 해당한다. 이제 도입부부터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나가기로 하자.

## 2.1. 도입부

히틀러는 연설시작부터 청중의 관심을 사기 위해 노력한다.<sup>11)</sup> 그는 청중의

9) 연설문이 몇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진술, 논증의 2분법에서부터 도입, 진술, 명제, 분할, 확인, 반론, 결론의 7분법에까지 매우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연설문의 논거배열 구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양태종(1991: 106f.), 박우수(1995: 67), 박성창(2000:76f.) 참조.

10) Vgl. Göttert(1991: 26).

11) Vgl. Göttert(1991: 26). 고전수사학에서는 연설의 도입부에 연사에게 몇 가지 과제가 부여된다. 이를테면 연사는 청중의 관심을 끌어야 하고, 청중에게 호감을 사야 하며 청중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히틀러는 고전 수사학의

마음을 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토포스(Topos)<sup>12)</sup>를 적용시킨다. 처음에 그는 노동자층의 청중을 겨냥해서 과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남자의 토포스를 적용한다. 이 토포스에는 말보다는 성실하게 행동하는 고정 이미지가 들어 있다. 히틀러는 연설서두에 이것을 끌어대고 있다.

나는 요즘 매우 드물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말할 시간이 별로 없고, 둘째는 요즈음은 말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sup>13)</sup>

이는 히틀러가 청중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행동양식이라 할 수 있다. 히틀러는 도입부에서 연설의 본론내용을 준비하기 위하여 두 세계간<sup>14)</sup>의 투쟁이라고 하는 테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이를 학문적 외관으로 치장하기 위하여 숫자를 들먹이며 인위적 논증을 시도한다. 그는 두 세계간의 삶의 기반이 불공정하게 분배되었다는 논지를 전개해나간다.

독일인은 8500만, 영국인은 4600만, 이탈리아인 4500만, 프랑스인은 대략 3700만입니다. 이들이 이 전쟁에서 맞서 싸우는 주요국가들의 국민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생활기반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600만 명의 영국인들이 약 40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전 영역을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3700만 명의 프랑스인들이 10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영역을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4500만 명의 이탈리아인은, 유용한 영역을 따져보면, 겨우 50만 평방 킬로미터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8500만의 독일인들은 겨우 60만 평방 킬로미터를 생활기반으로 갖고 있고, 그것도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서야 비로소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 8500만의 독일인들은 60만 평방 킬로미터만을 쓸 수 있고, 이것으로 삶을 꾸려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600만 영국인들은 4000만 평방 킬로미터나 갖고 있습니다.<sup>15)</sup>

이론을 잘 적용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2) 토포스는 논증의 주제들이 모여있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여러 준거를 통해 분류될 수 있다. 고전수사학에서는 토포스를 크게 사람과 사물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 둘을 다시 세분해서 논의한다. 이를테면 사람의 경우 다시 혈통이나 교육수준, 출신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양태종(1996b), 양태종(1999: 152-170), 박성창(2000: 67f.) 참조.

13) Bouhler(1942: 149).

14) 여기서 두 세계란 독일과 영국을 의미함.

히틀러는 4천 6백만 인구의 영국의 영토는 4천만 평방 킬로미터가 되는 반면에 8천 5백만 인구의 독일은 불과 6십만 평방 킬로미터밖에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히틀러가 나름대로 갖다 댈 계산법으로 여기에는 정확한 논지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청중의 정서적 효과를 얻어내기에는 충분하였다. 이는 학문적 논증방식인데 이와 같은 형식의 논증방식은 뒤에 가서 소득 분배와 관련된 내용에 또 다시 등장한다.<sup>16)</sup>

## 2.2. 진술부

고전 수사학을 보면, 도입부에서 청중의 관심을 끌고 난 연사가 바로 신경써야 할 사항은 말하고자 하는 담론의 대강을 알리는 일이다. 이는 진술부에서 행해진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 와서 연설의 근간이 되는 사태가 처음으로 묘사된다. 히틀러는 도입부에서 언급한 두 세계간의 불균형을 나치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술부를 시작한다.

자, 그런데 동포여러분, 땅이라는 것이 하늘의 섭리나 사랑하는 하느님에 의해서 그렇게 분배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분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난 300년 간의 역사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독일 민족이 내부적으로 무기력하고 산산이 찢어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30년 전쟁이 끝나고 뮌스터의 조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 백개의 소국가로 분할되었는데, 우리 민족은 이 전쟁에서 운명을 소진해버렸던 것입니다. 제후와 군주, 왕과 고위 성직자들, 이들이 우리 민족을 찢어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파벌이 생겨난 다음 세계관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어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sup>17)</sup>

히틀러는 불균형의 원인을 독일의 지난 역사에서 찾고 있다. 말하자면 독일은 수 백년동안 무기력한 결과로 인해 현재의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독일이 허약했던 시기에 다른 세계는 더 많은 영토를 폭력을 통해 탈취했기 때문에 독일이 더욱 불행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는 부당하게 분할되어 있는 영토를 다시 공정하게 분할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15) Bouhler(1942: 149).

16) 히틀러는 생략삼단논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논증을 '공간 없는 민족'이라고 하는 고정 이미지와 연결시켰던 것이다.

17) Bouhler(1942: 149f.).

그리하여 우리는 현존하는 긴장관계에 대한 첫 번째 전제조건이 이 세계가 불공정하게 분할되었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민족의 삶에서 그 일들이 민족내부에서와 꼭 마찬가지로 전개되었습니다. 민족내부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성을 통해서 아니면 이성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종종 힘을 통해서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민족의 삶에서도 특정인이 모든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 것도 남겨놓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의 섭리는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남보다 40배를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배된 것보다 80배나 되도록 인간을 세상에 보내시지는 않았습니다.<sup>18)</sup>

히틀러는 민족의 생존권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족공동체의 일치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지 특권층의 자선기부금 따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아울러 자신이 주장하는 독일민족의 생존권 요구는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강변하고 있다.

삶에 대한 권리는 보편적이고 동등한 것입니다. (...) 동포여러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동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되돌려 받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실제의 모든 사회주의적 노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관에서 손해를 보는 민족들이 사면절차에 의해 동냥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삶을 위한 권리는 동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기본적인 성질의 합법적 요구입니다.<sup>19)</sup>

이러한 맥락에서 민족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지(Boden)가 갖는 명목상 가장 성스러운 권리에 대한 요구를 정당화할 수 있고, 대지를 얻기 위하여 가장 혹독한 희생이라 할지라도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요구가 설득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삶에 대한 권리는 동시에 대지에 대한 권리주장입니다. 이것만이 삶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주장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신성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권리주장을 위하여, 무분별한 행동이 그들의 내적인 상호관계를 위협하려고 하면, 어떠한 민족이라도

18) Bouhler(1942: 151).

19) Bouhler(1942: 151f.).

바로 투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희생이라도 그것이 민족이 점차적으로 사멸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기에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던 것입니다.<sup>20)</sup>

위의 대목은 파시즘 언어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신성시되어 왔던 것(der älteste und der heiligste)’이라고 하는 최상급이 사용되고<sup>21)</sup> 어휘적으로는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낱말이 사용되고 있다. 대지(Boden)라는 낱말은 피(Blut)라는 낱말과 더불어 나치시대의 ‘피와 대지<sup>22)</sup>의 이데올로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어휘이다. 이 낱말은 나치즘의 기본명제를 지칭하는 전형적인 상투어로, 권력과 국가란 단일 인종과 영토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논리가 이 낱말 속에 들어 있다.

### 2.3. 논증부

도입부에서 청중의 관심을 사고, 진술부에서 연설내용의 대강을 알린 히틀러는 이 부분에 이르러 앞서 거론된 두 세계사이의 긴장관계로 인하여 야기된 전쟁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다. 이는 연설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사고는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져 전개된다.

#### 2.3.1. 논증부 1

이 부분에서 히틀러는 전쟁준비를 위해 민족의 국가적 일치를 필수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1933년 국가사회주의의 변혁을 시작할 적에 두 가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요구, 이는 우리민족의 국가적 일치에 관한 요구였습니다. 예컨대 이와 같은 총괄적인 결심 없이는, 독일의 필수적인 생존권을 확립하고 특히 이를 관철하기 위한 힘이 동원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말입니다.<sup>23)</sup>

20) Bouhler(1942: 152).

21) 파시즘 연사들은 정도의 표현을 나타낼 적에 극단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어법을 선호한다. 파시즘 언어의 최상급 표현에 대해서는 Volmert(1989: 151f.)과 김종영(2003: 53-56)참조.

22) 이 낱말을 지칭하는 독일어 Blut und Boden은, 줄여 ‘블루보(Blubo)’라고 하는 약어로 종종 사용된다.

민족이 하나되어야 할 이유로 히틀러는 권력을 장악하기 바로 이전의 시대적 상황을 언급하였다. 이는 불행한 과거를 들추며 청중의 경각심을 유발하며 국민모두가 단결하여 일치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은 8년 전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민족은 파탄이전에 칠백 만의 실업자와 약 육백 오십 만의 조업단축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완전히 파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농업은 파멸 직전에 있었고, 상거래와 영업행위는 파산되었으며, 우리의 해운은 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칠백만의 실업자가 언제 팔백 구백 천만이 될 것인지를 산출해낼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 적어지게 되었고, 일하지 않는 사람의 수는 그 반대가 되어 이들을 함께 부양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한 결실이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함께 먹이고 부양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살아야만 했기에 말입니다.<sup>24)</sup>

히틀러는 국민 모두가 평등하다는 논지를 세우고 그 자신 또한 전체국민의 일 부분이라고 언급하며, 일치만이 국민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를 망각하면 전체국민은 물론 개인 자신도 몰락하게 된다고 강변하면서, 본론의 첫 부분을 정리하였다.

### 2.3.2. 논증부 2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은 다음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국가적 요청을 나는 이제 애써 실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안에 많은 일이 행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아주 오래된 쓸데없는 것들로부터 독일을 청소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에서나 노력해야만 하는 다른 영역으로 넘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귀하게 여겨온 오래된 관습과 결별하기 위한 노력 말입니다. 나 역시 이 관습을 이해합니다. 이 관습은 사람들의 오래된 배지에 붙어 있고, 그들의 오래된 기에, 그들의 오래된 운동 따위에 붙어 있습

23) Bouhler(1942: 152).

24) Bouhler(1942: 152).



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오래된 계급선입견에, 그들의 계급의식, 오만한 신분의식 따위에 붙어 있습니다. 나는 이를 심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점차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이미 제거된 것도 있긴 합니다.<sup>25)</sup>

위의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히틀러는 독일이 새로 거듭나기 위해,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국민이 이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이를 위해 그는 국민이 해야만 하는 이 어려운 과업을 은유적 어법이나 대중에게 친숙한 일상어로 표현함으로써 대수롭지 않은 일로 만들어 버린다.

히틀러는 청중의 적극적 가담을 유도해내는 심리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동일한 내용을 다양하게 변형된 문장 표현을 이용하여 반복해서 끄집어내고 있다. 그는 현 상황 양측의 긴장상황이 벌어진 데 대한 이유로 세계가 부당하게 분할되어 있다는 논지를 다양한 표현으로 전개해나간다. 그 가운데 다음의 표현은 매우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나는 이 세계가 차이 나게 구분되었다고 이미 언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관찰자와 영국인들은 이에 대해 놀랄만한 표현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민족이 있습니다. 소유자와 빈 털털이 말입니다. 우리, 우리 영국인들, 우리들은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천만 평방 킬로미터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인들도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프랑스 인들도 마찬가지로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빈 털털이입니다.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는 자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갖고 있는 것에서 어떤 것도 떼어주지 않습니다.”<sup>26)</sup>

위의 표현에서는 영국인 스스로가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히틀러의 논거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 된다. 히틀러는 겉보기에는 영국인들이 자신의 독창적인 진술로 스스로를 억압자로 폭로하게 한다. 이어서 그들로 하여금 영국은 부유하지만 가장 심한 계급차이를 갖고 있는 나라로 묘사하면서 영국 민주주의의 혐오성을 증명하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히틀러는 외부로의 전쟁을 정당화시키고, 독일은 적국에 있는 시민들을 해방하는 해방군으로서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 낸다.

25) Bouhler(1942: 155).

26) Bouhler(1942: 156).

앞서 권력장악 이후 두 가지 강령가운데 하나인, 민족의 일치가 역설되었다. 민족공동체 실현의 중요성이 강조된 후 히틀러는 두 번째 강령으로 외교적 압박으로부터 독일민족의 해방을 추구하고 나섰다, 이는 바로 베르사유조약에 대한 투쟁으로 연결된다. 덧붙여 그는 영국과 프랑스의 ‘소위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소독의 대부분이 소수의 자본가에게 돌아가지만, 독일은 모든 국민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그리고 그는 이를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인위적인 증거로 삼았다.

나는 100분의 6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100분의 6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그 반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도 그것이 민족공동체의 이해관계에서 다시금 투자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sup>27)</sup>

### 2.3.3. 논증부 3

본론의 세 번째 장에서는 나치의 ‘민족공동체’와 금을 탐욕스럽게 갈구하는 적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서로 다른 경제관이 제시된다. 히틀러는 우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메카니즘을 단순화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는 아주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돈이라는 것은 도대체가 결코 가치 있는 요인이 아니라 억압하기 위한 요인, 말하자면 민족을 지배하기 위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sup>28)</sup>

히틀러는 돈이란 민족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요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나서, 독일은 다른 나라에 의해 강요된 약탈로 인해 고통을 당하였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가치 없는 돈과 대비시켜 노동과 노동력을 찬미하고 있다.

나는 전체 경제를 오로지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 위에서 세웠습니다. (...) 오로지 노동만이 새로운 노동을 창출해냅니다. 돈이 노동을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고, 노동만이 새로운 노동을 창출해냅니다. 노동은 스스로 다시금 일을 하려고 하는 인간을 보상해주는 가치입니다.<sup>29)</sup>

27) Bouhler(1942: 161).

28) Bouhler(1942: 162f.).

29) Bouhler(1942: 163f.).

이 부분에서 히틀러는 ‘노동만이 새로운 노동을 창출해낸다’라고 하는 문장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청중에게 노동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다. 이 반복되는 문장을 이용하여 그는 자연스럽게 전쟁준비로 연결시켜나간다. 그러니까 그는 노동을 통해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전쟁에 동원하려는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다시 한번 국민의 결속을 요구하고 있다.

칠백만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육백만 만나절노동자를 종일노동자로 바꾼 것은, 오로지 우리가 건설한 세계는 함께 일하는 세계, 함께 노력하는 세계, 함께 걱정하고 서로 의무를 지는 세계라는 사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sup>30)</sup>

#### 2.3.4. 논증부 4

연설본문의 네 번째 장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온 전쟁준비<sup>31)</sup>가 생존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제시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과 관련해 제한되는 속박이 나치 민족공동체의 보다 나은 경제적 정치적 체제의 증거가 된다. 히틀러는 이러한 속박을 성공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나치의 민족공동체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개인의 일상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제3제국과 총통자신의 탁월한 영도력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을 위한 나치정부의 노력을 확인하며 본문의 제4장을 끝맺고 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압박을 극복했습니다.<sup>32)</sup>

#### 2.3.5. 논증부 5

본문의 다섯 번째 장은 이 연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양에 있어서도 전체 연설의 삼분의 일 이상을 차지한다. 히

30) Bouhler(1942: 164).

31) 나치는 전쟁준비를 위해 식량정량배급을 비롯해서 일상의 많은 제약을 국민에게 강요해왔다. 이로 인한 국민적 불편함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히틀러는 속박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32) Bouhler(1942: 166).

틀리는 우선 미래를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미래를 위하여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국가 정치적 교육기관과 아돌프-히틀러 학교 같은 수많은 학교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재능 있는 아이들을 이들 학교로 데리고 옵니다. 우리 전체대중의 아이들, 노동자의 아이들, 농부의 아이들 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부모들은 절대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점차적으로 숙달을 해 나가며 교양을 넓혀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장차 국가에 투입되어서 정당에도 들어가고 훈장 받는 시민이 되고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sup>33)</sup>

이러한 미래의 비전을 바탕으로 히틀러는 아무런 차별 없는 민족 공동체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국가를 아주 바닥에서부터 건설할 커다란 가능성을 창출해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울러 우리 모두의 삶의 기쁨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그와 같은 이상을 위해 싸운다는 것은 정말이지 영광스러운 그 무엇입니다. 우리가 환상적으로 우아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능력 있는 아들에 의해서 채워질 미래의 한 국가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 아들이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이 아주 동등하게 채워질 그런 국가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 국가에서는 출신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업적과 능력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완전히 열광적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에 흠뻑 젖어 일한다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 커다란 기쁨입니다.<sup>34)</sup>

위의 연설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의 국가적 목표를 언급하고 있는 대목에서 히틀러는 긍정적 개념을 지니고 있는 어휘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를테면 ‘삶의 기쁨’, ‘영광스러운 것’, ‘이상’, ‘놀라운’ 과 같은 어휘가 집적(集積)되어 나오고 있다.<sup>35)</sup> 히틀러는 이렇게 행복이 넘치는 나치의 이상적인 세계에 다른 세

33) Bouhler(1942: 166).

34) Bouhler(1942: 166f.).

35) 이는 표현의 상승고조효과를 추구하는 파시즘 언어의 문체상의 특징으로 파시스트들이 즐겨 사용하였다. 파시즘 언어의 표현집적 현상에 대해서는 Seidel/Seidel-

계를 대치시킨다.

그리고 이제 이 세계에 다른 형상물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마지막 이상이 늘 반복해서 계산을 위한 투쟁, 자본을 위한 투쟁이고, 가족을 위한 투쟁, 개개인의 이기심을 위한 투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런 것들 말고도 오로지 목적을 위한 수단만이 있을 뿐입니다.<sup>36)</sup>

나치와 대립되는 다른 세계의 모순점을 나열함으로써 히틀러는 독일과 모순된 이 세계와의 전쟁의 당위성을 청중에게 확인시키고 있다. 이어서 그는 전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쟁의 승패가 민족과 국가에 미치는 상황을 비장하게 선포하고 있다.

두 세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서로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진다면 그것은 종말입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과업의 종말이 아니라 독일민족의 종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의 힘의 통합 없이는 이 세계의 사람들은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나는 두 세계가운데 하나는 붕괴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붕괴되는 경우에는 독일민족은 우리와 함께 붕괴될 것입니다. 만일 다른 세계가 붕괴된다면, 확실히 민족은 처음으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sup>37)</sup>

히틀러는 두 세계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대비시켜 표현하고 있다. 이를테면 돈과 노동으로 대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수와 진보로 대치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돈과 보수주의는 다른 세계를 대변하는 가치기준이 되고 노동과 진보주의는 독일민족공동체를 대변하는 속성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벌써 이 전쟁에서 돈이 노동에, 자본이 민족에, 보수주의가 인류진보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다는 신호로 설정되어졌다면, 노동 그리고 그 다음 민족 그리고 그 다음에 진보가 승리할 것입니다.<sup>38)</sup>

---

Slotty(1961: 1-15)와 김종영(2003: 99-105) 참조.

36) Bouhler(1942: 167).

37) Bouhler(1942: 167f.).

38) Bouhler(1942: 168).

히틀러는 다시금 서방세계에 대한 자신의 두 가지 요구를 반복한 후, 군비 확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나는 수년 전부터 이것을 예측해왔습니다. 대체 내가 다른 세계에다 두고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독일인들이 통합되는 권리 말고는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독일인에게서 가져갔던 것을 그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라고 하는 것뿐입니다.<sup>39)</sup> 그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민족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주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까.

권력을 쟁취하고 나서 바로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군비를 확장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대체 무장을 한다는 것이 뭐란 말입니까?<sup>40)</sup>

이와 같은 히틀러의 논리 안에서 보면, 상이한 두 세계는 병존할 수 없기에 두 세계간의 결전은 필연적인 것이 되어버리지만, 독일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히틀러는 항변하고 있다. 다만 오래 전부터 이러한 결전을 예측해왔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재무장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히틀러는 전쟁을 결코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전쟁의 이면에 들어 있는 제국주의적 동기와 호전적 국가 지상주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공간 없는 민족이라고 하는 인위적 논거를 사용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그 민족이 심지어 박해까지 받는다고 하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논지를 전개한 후 자신은 이 전쟁을 원치 않고 오히려 평화적인 노력을 해왔다는 사실을 두어 첩용의 문체수단을 이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군비를 제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로서는 아예 폐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웃기만 했습니다. 나는 거절한다는 소리만을 들었습니다. 나는 몇 개의 무장에 대해서 제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적어도 전쟁을 제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나는 전쟁에서 공군을 무조건 제외시키자

39) 역주: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에 강요되어 독일민족이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기에, 이들이 다시 합쳐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리로 체코의 슈테텐 지역을 독일에 병합시켰고 급기야 폴란드의 회랑지역과 단치히 자유시를 독일에 복속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다. 이는 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 개전 연설에서 이에 대해 상세한 언급을 하고 있다(Vgl. Domarus 1988: 1312-1317 참조).

40) Bouhler(1942: 168).

고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폭탄무기를  
최소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거절하였습니다.<sup>41)</sup>

위의 대목에서는 ‘나는 (...) 제안했습니다(Ich habe Vorschläge gemacht, ...)’라  
고 하는 두어삽용의 문장이 여섯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 이는 히틀러가  
전쟁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내보이기 위하여 사용한 고  
도의 수사학적 문체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러한 노력을 거절하였기에, 전쟁을 준비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그  
는 희생과 복종의 욕구를 물질적 욕구보다 우선 시 한다. 이는 독일을 위한 전  
투와 군수노동자의 사심 없는 근면함을 영웅시함으로써 미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동포여러분, 희생자 여러분. 희생이란 개인에게 있어 아주 어려  
운 것입니다. 남편을 여윈 여성, 그들은 갖고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을 잃어버렸  
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여윈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희생시킨  
어머니나 신랑이나 애인을 잃어버려 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신부나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모두는 커다란 희생을 치렀습니다.<sup>42)</sup>

이제 이러한 바탕 위에서 히틀러는 전쟁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국  
민의 불편함과 희생을 격려의 말로 달래면서 국민 상호간의 연대감을 조성해  
나간다.

독일 군수노동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훌륭한 국방군에게 분명 신세를 지  
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정신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 민족공동체의 정  
신도 그와 같은 정신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대체 왜 전쟁을 하  
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업적을 이룬 우리의 군인들에게 감  
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독일 군인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무기를 제공해준 점  
에 대해 여러분 군수노동자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군이  
무기의 열등감을 갖지 않고 전투에 임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  
다. 그들은 어디에서든 우리의 무기가 더 좋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  
은 여러분의 공입니다. 여러분 공장노동자의 노동의 결과이고, 여러분의 근면  
함,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백만의 독  
일 가정이 자신들을 부양하는 사람을 갖고 있고, 미래에도 다시금 갖게 된다면,

41) Bouhler(1942: 169).

42) Bouhler(1942: 172).

수많은 가정이 아버지를 갖고, 수많은 어머니들이 아들을 갖는다면, 이들은 군수노동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을 그렇게 확신시켜주는 무기를 통해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군인 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미래에는 한층 더할 것입니다.<sup>43)</sup>

히틀러는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국민에게 간청을 늘어놓는다. 대 국민 간청에 앞서 그는 독일민족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삶과 건강을 볼보지 않고 가져없이 전쟁에 투입할 것이라고 맹세하고 있다.

우리의 사전과 내 사전에는 '항복'이라는 낱말이 결코 없습니다. (...) 내가 오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내 뒤에 전 독일민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날 독일민족의 다가올 삶의 대변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 걸맞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삶을 보다 편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능력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독일민족을 위한다는 인식 하에 독일민족을 끝없이 배려해왔고 결코 쉬지 않고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수행할 적에 나의 삶이나 건강 따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sup>44)</sup>

히틀러는 자신의 희생결의를 표명한 이후 국방군, 노동자, 농부 그리고 특히 여성에게 요구하는 희생을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그는 모든 계층의 국민에게 그들이 공동체적 운명을 띠고 있다는 인식을 고취시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정신 속에서 오늘날 내 뒤에는 무엇보다도 독일 국방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보다도 독일 노동자와 독일의 농부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분들은 이 전쟁준비를 가능하게 해주었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무장으로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분들은 이 전쟁이 오래 걸릴지 모르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치를 수 있도록 제공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특히 나는 독일의 여성에게 감사드립니다. 때론 남자들의

43) Bouhler(1942: 173).

44) Bouhler(1942: 176).



힘든 노동을 수행해야만 하는 수많은 저 여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사랑과 열정으로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고 있으며 많은 자리에서 남성들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필요한 경우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였고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날 독일민족을 대표하고 미래에도 독일민족을 대표할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현재를 위한 전쟁 일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미래를 위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sup>45)</sup>

#### 2.4. 종결부

종결부에서는 앞서 언급된 기본 테제들이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설명된다. 기본 테제의 요약에 이어 히틀러는 민족과 함께 할 위대한 계획을 언급하며, 이 목표와 독일민족의 관계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를 하나의 목표로 향하게 하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 민족국가를 이제야 비로소 올바르게 확대 발전시킬 그러한 목표를 말입니다.<sup>46)</sup>

히틀러는 민족이 함께 하는 이 길에서 자신이 문제해결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여 청중의 안도감을 유발해낸 후, 미래의 희망적 표현으로 종결부를 마무리해간다. 이 내용들은 평화, 노동, 복지, 문화라고 하는 제3제국의 이상적 덕목들로 채워지게 된다.

동포여러분, 내가 1919년 알려지지 않은 무명용사로서 인생을 시작했을 때, 그때 나는 틀림없이 커다란 환상을 갖고 위대한 미래의 희망을 세웠습니다. 그 희망은 실현되었습니다. 오늘날 내가 계획하고 목표로 설정한 것은 우리 뒤에 놓여 있는 성과나 성공과 비교해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까지 성취되어야했던 것보다도 더욱 확실하게 달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명용사, 이름 없는 병사에서 독일국민의 지도자로 가는 여정은 독일국민의 지도자에서 평화의 창조자로 가는 여정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나는 15년 동안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싸우고 투쟁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의 신뢰의 덕으로 독일을 위해 싸우고 투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

45) Bouhler(1942: 176f.).

46) Bouhler(1942: 177).

가 우리가 함께 평화와 노동과 복지와 문화의 이 위대한 제국을 위해 확신에 차서 투쟁하게 될 시간이 다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국을 원하고 이 제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sup>47)</sup>

지금까지 분석한 부분의 연설내용을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배열	단락	내 용	
도입부	1-8	두 세계간의 투쟁	
진술부	9-16	두 세계간의 불균형, 독일영토확장의 당위성	
중 부	1	17-26	전쟁준비를 위한 민족의 일치감 조성
	2	27-47	두 세계간의 긴장관계의 원인 - 부당한 세계분할
	3	48-54	노동의 중요성 - 배금사상 강조
	4	55-57	전쟁준비와 민족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국민의 역할
	5	58-81	두 세계의 비교, 회생정신·국민상호연대감 조성
종결부	82-86	미래의 계획과 희망제시	

<표 1> 논거의 배열(dispositio)에 따른 연설문의 내용분류

### 3. 맺는 말

이 연설에서는 외적인 구성의 탄탄함과 연설내용의 논리적 치밀함이 드러나고 있다. 연설의 기저에 깔려있는 논증은 인위적인 증거로 이루어져 연설에 계몽적 속성을 부여한다. 히틀러는 나치 지배의 합법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언어적 표현을 이용한 연상효과를 겨냥한다. 이 때에 낱말에 동반되는 표상의 기본 의미는 연사에 의도에 따라 변화된다. 이를테면 계급사회에 대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허약함’, ‘무방비’, ‘어찌할 바 모름’의 표상과 결부되고, 그러한 사고에서 비롯되는 ‘민족의 상심’은 부정적인 내포개념을 얻는다. 이에 반해서 민족공동체는 ‘구제’, ‘강력함’ ‘미래’와 동일시된다.

실제 청중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히틀러는 청중의 감성을 자극해나간다. 그리하여 청중은 다양한 집단에서 하나의 통일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47) Buhler(1942: 178).

변모해 나가게 된다. 그는 일치된 청중의 마음을 얻어내고, 일치된 청중과 함께 온 민족이 하나로 결속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연설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서 히틀러는 통치의 정당화를 위해 동원한 수사학을 이용하여 계급사회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청중의 사회적 동기를 유발시킨다. 연설에서 사용된 공간 없는 민족의 고정이미지는 바로 나치총통 국가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준거가 되었고, 나아가서 파시즘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받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상승되고 고조된 표현은 청중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데 일조 하였으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청중은 나치가 추구하는 이상적 동반자로 변모해가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그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공격적 나치세계관을 신뢰하도록 꾀한다. 이제 연설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연사의 이야기를 그저 수동적으로만 듣고 있는 청중의 모습이 아니었다. 히틀러는 연설을 통해 청중을 동기부여 받은 전사의 모습, 즉 파시즘이 추구하는 체제를 적극 옹호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전사의 모습으로 변모시켰다. 이로써 그의 정치연설을 통한 언어적 대중선동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되어 파시즘 이데올로기 실현에 일조 하였던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종영(2002): 파시즘에서의 연설의 기능, 텍스트언어학, 제13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S. 367-386.
- 김종영(2003): 파시즘 언어, 서울.
- 박우수(1995): 르네상스 인문주의자와 실천적 삶: Agricola와 Thomas Wilson의 논리·수사학, in: 인문학지, 제13집, 충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S. 37-81.
- 박성창(2000): 수사학, 서울.
- 양태종(1991): 고대(Antike) 수사학 연구 - 키케로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태종(1996b): 말터(Topos) 나누기, in: 언어와 언어교육, 제11집, S. 83-103.
- 양태종(1999): 수사학 이야기, 부산.
- Bouhler, P.(Hg.)(1942): Reden des Führers. Der Großdeutsche Freiheitskampf. 2. Bd. Reden Adolf Hitlers vom 10.3.1940 bis zum 16.3.1941, München.
- Diesener, G/ Gries, R.(Hg.)(1996): Propaganda in Deutschland. Zur Geschichte der politischen Massenbeeinflussung im 20. Jahrhundert, Darmstadt

- Domarus, M.(1988): Hitler. Reden und Proklamationen 1932 - 1945. Kommentiert von einem deutschen Zeitgenossen. Bd. 1.- 4. Leonberg.
- Ehlich, K.(Hg.)(1989): Sprache im Faschismus. Frankfurt am Main.
- Göttert, K.-H.(1991): Einführung in die Rhetorik. Grundbegriffe- Geschichte-Rezeption, München.
- Seidel, E./Seidel-Slotty(1961): Sprachwandel im Dritten Reich. Eine kritische Untersuchung faschistischer Einflüsse, Halle.
- Suzalek, R.(1987): Die Funktion der Rede im Faschismus. Mit einem Vorwort von Gerhard Kraiker. Oldenburg.
- Volmert, J.(1989): Politische Rhetorik des Nationalsozialismus, in: Ehlich, K.(Hg.)(1989): Sprache im Faschismus. Frankfurt am Main, S. 137-161.
- Winckler, L.(1983): Hitlers Rede zum 1. Mai 1933 - Oder: Des Kaisers neue Kleider, in: Diskussion Deutsch 73. 1983, S. 483 - 498.

## **Zusammenfassung**

### **Eine Analyse der Hitlerrede vom 10.12.1940**

Kim, Chong-Young(Mokpo National Univ.)

In dieser Arbeit wird der Versuch unternommen, die Rede Hitlers vom 10.12.1940 zu analysieren. Diese Rede gehört zur politischen Rede. In dieser Rede gibt es verschiedene Funktionen. Sie dient der Erzeugung und Zusammenfassung von Massen im Vereinigungsakt, weiterhin der Verschleierung der realen Verhältnisse. Die dritte Funktion kann man in der Legitimation von Herrschaft sehen.

Im ersten Abschnitt wird die inszenatorische Ebene der Rede beschrieben. Die Halle ist durch einige Hakenkreuzfahnen nur wenig geschmückt. Dies wirkt eine Nüchternheit, die das Publikum seine gewohnte Umgebung neu erheben lässt. Die stilisierte Glorie ist geeignet innere Haltung zu provozieren, die die Opfer der verstärkten Arbeitsbelastungen ertragen lassen sollen.

Im Abschnitt zwei wird die Rede nach rhetorischen Kriterien analysiert. Hier handelt es sich um die fünf Bearbeitungsphasen der Rede, und zwar, inventio, dispositio, elocutio, memoria und pronuntiatio. Die dispositio ist der Gegenstand dieser Arbeit. Normalerweise gliedert sich dispositio in vier Elemente, nämlich Einleitung, Schilderung des Sachverhalts, Begründung und Schluß. Mit dem rhetorischen Aufbau wird eine summarische Darstellung der politischen Absichten und Ziele des Redners gegeben. Die Rede selbst hat deutlichen Appellcharakter. Die

Entrückung durch den Appell ist eine der hier gewählten rhetorischen Methode, um die erwünschte Wirkung bei den Zuhören zu erzielen. Hitler versuchte, die durch die Aktivierung zwischen ihm und Publikum vorhanden, unbewußten psychischen Potentiale, die durch den Akt der Rede aktiviert werden, zu realisieren.

[검 색 어] 연설문, 수사학, 배열, 파시즘  
Redetext, Rhetorik, dispositio, Faschismus

김종영

534-729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

목포대학교 인문과학원 교육연구소

yesora@hotmail.com